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5. 30.(목) 06:00 < 5.30.(목) 석간 > 배포 2024. 5. 29.(수)

한·미 디지털헬스(원격의료) 분야 협력

-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와 미국 상무부는 5.30.(목) 한국시간 오전 8시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지난 '24년 3월 '한·미 공급망·산업대화(SCCD, 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의 후속 조치로 양국 디지털헬스 및 원격의료 산업에 대한 상호 이해 증진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디지털헬스 산업은 급격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진료 등 분야에서 사업화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 글로벌 디지털헬스 산업: 3,480억불('22) → 4조 900억불('32)로 연 28% 성장 예상

한·미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산업부, 미국 상무부, 양국 디지털헬스 유관 협회와 양국의 디지털 헬스 관련 30여 개의 유망 기업이 참여하였다. 한국 측은 국내에서 비대면 진료 앱 등 헬스케어 플랫폼 선도 기업인 케어랩스와 룰루메딕이, 미국 측은 미(美) 원격의료 1위 기업인 텔라닥(Teladoc),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박스터(Baxter)가 주요 사업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발표하였고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풍부한 임상 데이터와 높은 정보화 기술 등 디지털헬스 분야에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부는 디지털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지원, 인재양성 등 정책을 추진중"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원격의료 쇼케이스를 계기로 양국의 디지털헬스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아울러 "6월에 개최되는 바이오 USA 2024('24.6.3~6)를 통해 양국의 제약·의료기기·소부장 등 바이오 산업의 전 방위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총괄>	첨단산업정책관 바이오융합산업과	책임자	과 장	김태희 (044-203-4290)
		담당자	사무관	임성관 (044-203-4296)
		담당자	주무관	고영준 (044-203-4298)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 **한미 원격의료 쇼케이스 개최 계획**

□ 개요

○ **(일시/장소)** ‘24.5.30일 08:00~09:35(한국시간) / 화상회의

○ **(참석)** (한) 바이오융합산업과,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스마트헬스케어산업협회, 케어랩스, 룰루메딕

(미) 상무부,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 Baxter Korea, Teladoc

※ 그 외 한·미 디지털헬스 협회 회원사 30여 개 참여

○ **(내용)** 양국 원격의료 산업 현황 공유(양국 협회), 기업별 발표

□ 세부일정

시간	주요내용
08:00~08:05 (‘5)	오프닝 및 모두발언(산업부, 미 상무부)
08:05~08:45 (‘40)	(韓발표1)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韓발표2) 케어랩스 (韓발표3) 룰루메딕
08:45~09:25 (‘40)	(美발표1) American Telemedicine Association(ATA) (美발표2) Baxter Korea (美발표3) Teladoc
09:25~09:35 (‘10)	질의 응답